

# 향일암 화재 ‘인재?’ ‘방화?’ ‘미궁속’

## 소방용수 저장탱크 완공 앞두고 화재 안타까움 더해... 부실한 방재시설이 피해 키워

최근 낙성한 황금단청 대웅전 등을 모두 태우고 화재발생 후 3시간 만에야 진화된 여수 향일암(전 남문화재자료 제40호) 화재가 화재원인은 차지고서라도 소방 방재시설 등의 미비로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재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일암 화재는 구랍 20일 0시 24분경 일어나 대웅전(51㎡),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동 중 3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직후 향일암에 있던 스님 등 16명은 소방대원 공무원 주민 등과 진화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대웅전 등 전각과 청동불상, 탱화, 범종 등 문화재는 지키지 못했다. 화재원인은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중이다.

향일암 사무장 등 목격자에 따르면 불은 대웅전 쪽에서 처음 발생했다. 대웅전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컸던 것은 인적이 끊긴 시간대에 발생해 거센 바람을 타고 번져 피해가 컸다. 또, 감주위로 곳간이 얼어붙어 초기진화를 어렵게 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화재 진압 후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향일암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자정 무렵으로 0시 24분 119에 신고 됐다. 향일암서 가장 가까운 소방시설은 여수소방서 군내지역대로 15km 거리였고, 돌산 119안전센터로부터 26km, 여수소



구랍 20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향일암에서 소방대원들이 잔해를 끄고 있다.

방서로부터는 39km나 떨어져 있어 첫 소방차는 신고 후 20분이 지난 0시45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향일암에 이르기 전 1km 구간은 소형 소방차만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비좁았다.

당시 풍속은 초속 5~6m로, 불길은 거센 바닷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갔다. 영하의 기온은 진압초기 뿌려진 물을 얼어붙게 해 사건 현장에 접근을 어렵게 했다. 한밤중이라 헬기 투입도 쉽지 않았다.

여러 악재 속에 화재진화까지 소요된 시간은 3시간 여. 이 사이 최근 황금불사를 마친 대웅전(51㎡)을 비롯해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개동 가운데 3개동이 잿더미로 변했다. 승래문 화재사건 후 다수의 목

조문화재에는 스프링클러 등 방재 시설이 설치됐지만 이번 화재로 소실된 향일암 전각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감지기도 관음전 단 한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경내에 소화시설이라고는 소화기 15개가 전부였다. 이런 까닭에 CCTV와 옥외소화전도 없었던 부실한 방재 시설이 초기진화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향일암 화재 발생 후, 해당 교구 본사인 화엄사는 인력을 급파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도 구랍 21일 문화부 직원을 파견해 화재수습과 복원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같은 날,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성명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가 눈앞에서 소

실되는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은 지난 2004년 양양 낙산사를 잃은 이후 전국 사찰의 목조문화재 화재 방지와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면서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정부 지원이 국가 지정문화재에 집중되고 있어 향일암과 같은 지방문화재는 방재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경)도 구랍 22일, 여수 향일암 화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도회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향일암을 화마로 잃게 것은 방화의 대비에 소홀한 모두의 책임이

며 국가의 성보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방문화재 관리와 보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소실의 원인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향일암 화재는 대부분의 시각처럼 사찰의 허술한 방재대책과 정부의 지정문화재 중심의 지원에 문제가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향일암이 최근 100톤 가량의 소방용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2010년 추가예산안에 향일암 소방용수탱크를 활용할 소방펌프, 탐지기 설치비용 등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특히, 많은 불자들은 향일암이 지난 4월, 개신교신자가 난입해 쇠파이프 등으로 불상 등을 훼손하다 검거된 사실도 있어, CCTV조차 마련하지 않은 사찰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향일암을 비롯한 관할구역 내 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지 용문 스님은 “관음기도 도량을 화마에서 지키지 못해 불보살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대웅전을 건립하는데 지극정성으로 동참한 신도들에게도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향일암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복원에 나서겠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조동섭 · 노덕현 · 이상연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행복나눔 홍보대사’ 장동건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친구들이 활력소”



영화배우 장동건이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지거 스님과 한 조가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화배우 장동건이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거)의 행복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최근 새작품(영화 ‘아름다운 우리’-가게)을 준비하고 있는 광경택 감독과 장동건은 12월 21일 복지관을 방문해 위촉식을 가진 뒤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동건은 복지관내 직업적응훈련실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체 활동을 하며 “예쁘고 멋진 친구들과 잠깐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활력소가 된 것 같아 고맙다”고 전했다.

또 함께 참여한 광경택 감독은 “복지관에 인연이 있어 가끔 후원을 하긴 했지만, 행복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돼 보람되고 즐겁다.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작업활동에 이어 장동건은 복지

관 지하식당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과 식사를 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뒤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장동건은 “평소 지거스님과의 인연으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게 됐다”며 장애인·비장애의 벽이나 편견이 없는 상생의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장동건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거 스님으로부터 무명(無名)이라는 법명과 수계증을 받았다.

관장 지거 스님은 “취약계층에 행복을 나눠주는 장동건씨가 참 아름답다.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 배우 장동건씨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02)3667-0873 이나은 기자

# 고려대장경 초조본 디지털 복원

## 고려대장경연구 · 日 하나조노대 25일 보고회

2011년 조성 천년을 한 해 앞둔, 2010년 고려대장경 초조본(初雕大藏經)이 디지털로 화원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난선지(南禪寺) 등에 소장된 고려대장경 초조본 디지털 복원의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디지털 복원에 공동참여한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난선지에 감사의 뜻으로 일본 현지에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고회는 1월 25일 일본 교토 가든필리스에서 열린다. 초조대장경 6000여 권 가운데

2000권의 인본(印本) 대부분이 일본 교토의 난선지(南禪寺)에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난선지(南禪寺) 등에 소장된 고려대장경 초조본 디지털 복원의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디지털 복원에 공동참여한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난선지에 감사의 뜻으로 일본 현지에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고회는 1월 25일 일본 교토 가든필리스에서 열린다. 초조대장경 6000여 권 가운데

2000권의 인본(印本) 대부분이 일본 교토의 난선지(南禪寺)에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난선지(南禪寺) 등에 소장된 고려대장경 초조본 디지털 복원의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디지털 복원에 공동참여한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난선지에 감사의 뜻으로 일본 현지에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고회는 1월 25일 일본 교토 가든필리스에서 열린다. 초조대장경 6000여 권 가운데

# ‘선재의 선물’ 훈훈함 전해

## 아름다운동행 진관지역아동센터서 전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불교계의 온정이 담긴 선물이 전달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구랍 24일 서울 진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선재

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 프로 골퍼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호두과자를 선물해 훈훈함을 더했다.

전달식에서 자승 스님은 “진관사

가 이런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종단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곳 어린이들이 티 없이 밝게 생활하고 즐겁게 공부해 달라”고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함께 참석한 배상문 프로골퍼에게도 “바쁜 일정에도 동행 사업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불자 프로골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불교 포교에도 힘써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박선주 기자 · 공동기자단

# 동국대 로스쿨 탈락 ‘확정’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조치했다.

지난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로스쿨 대학 선정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동섭 기자

단식 참선

# 청소년 및 일반 삼매체험 선수련회

5일출가

1.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24일부터 3차례에 걸쳐 <청소년 및 일반 선수련>을 개최합니다.
2.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과 고교생을 위해 몸과 마음의 원래 아름다움을 찾는 성형(成形)을 위해 <청소년 선수련>을 개최합니다.
3. 지금 우리 사회는 향락과 퇴폐가 극도에 이르러 청소년의 위치가 불안하기 그지없는 사회화경입니다. 게다가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연말연시에 들뜨고 혼탁한 분위기에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까지 나서서 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의 외모 성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청소년들의 갈등과 방황을 예방하고, 사회의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금강단식과 참선(간화선)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청소년에게 삶의 목표와 새로운 인생관을 자리잡게 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이번 선수련의 키워드는 중단과 반조입니다. 사람들은 중단(中斷)하면 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야말로 향상(向上)입니다. 돌이켜 보는 반조(返照)가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의든 타의든 10여년이란 세월동안 이어온 그릇된 사고와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아 본래 온전한 나, 참 나인 존재의 실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징**

- 간화선 수행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갈등과 방황을 예방한다.
- 향락과 퇴폐의 사회환경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이 자리잡도록 한다.
- 성적 위주의 공부에 지친 청소년에게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 시킬 수 있다.
- 변화를 막는 의존 의타적인 무기력한 정신을 지양하여 자율적인 주인의식을 확립,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기로 기틀을 확립하는데 참선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
-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기라 참선을 받아들이기 쉽고, 학과참구에 집중이 잘 될 수 있다.
- 학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수행을 하여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 있다.
- 자녀와 부모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가족이 인간회복을 공유하고 삶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행환경 조성과 인간가치를 구가하는 가정형성이 기대될 것이다.
- 4박 5일의 단기출가에서 단기출가의 의미를 보다 신성하고 폭넓게 주지시켜 새로운 삶의 태도와 인생의 폭넓은 이해를 촉진시킨다.

**■주요 내용**

- 나는 무엇인가, 인생사에 있어서 목표의 발견, 간화선과 화두, 인간의 가치와 존귀, 주인 의식.
- '사대'의 의미, 자율의 힘, 지혜(깨달음)의 위대함과 지혜의 적용, 참나의 작용, 본래관전 무결한 본래자신

**■일과** : 법문, 점진, 단식, 묵언, 행선, 좌선, 예불, 선이록독송, 요가, 율려, 산행, 중단반조

**■효과**

- 참선과 금강단식을 병행한 본 선수련은 심신의 흥가분한 경계함을 통감할 수 있음
- 통찰로 지혜의 극지에 도달하고 참나 회복으로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 성격개조로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및 잠재능력개발
- 사회생활과 섭취하는 음식의 변화로 인해 유소년기부터 생기는 성인병 예방 및 치료 효과

- 체질개선을 통한 고혈압, 당뇨, 어드름, 피부미용, 아토피, 여성병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 감식(예비단식)과 보식(단식식) 및 요요현상이 없으며, 참선으로 단식부담 해소

**■대상** : 청소년 - 고교생 및 부모동반(부 또는 모) / 일반 - 대학생 및 일반인

**■수련일정**

- 청소년 2009년 12월 24일 ~ 2010년 1월 3일(1,2차)
- 일반 및 청소년 통합 2010년 1월 9일 ~ 2월 24일(3~6차)

차수	수련명	날 짜	기간	대상	장 소
1차	인출반	2009. 12.24 ~ 12.28	4박 5일	고등학생(보호자 동반)	활인선원
2차	인출반	2009. 12.30 ~ 2010. 1. 3	4박 5일	고등학생(보호자 동반)	활인선원
3차	비다반	2010. 1. 9 ~ 1.13	4박 5일	일반	활인선원
4차	비다반	2010. 1.16 ~ 1.20	4박 5일	일반	제주 원명선원
5차	통합반	2010. 2. 6 ~ 2.10	4박 5일	고3, 일반	활인선원
6차	비다반	2010. 2. 20 ~ 2.24	4박 5일	일반	활인선원

인출반(인생 새활발), 비다반(비우고 다지고)

**■신청접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문의전화** : ☎ 1644-5266 / 070-7519-9921 찾아오는 길은 카페에 자세히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 원명선원

안성맞춤고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원명선원 중앙연수원